



◇미타사 총무 설봉스님이 31일 폭행당한 후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 간이침대에 누워있다.

공사항의 비구니스님 폭행

미타사 스님에 물뿌리고 승복찢어, 머리·다리 구타

오전 8시 30분 경 스님과 신도들이 건설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시작하자 현장 인부들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과 총무 스님들이 호수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지 스님의 장삼과 총무 스님의 고의바지가 찢어졌다. 2차 폭행은 10월 31일 건설현장에 자재를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전 9시 경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명예회장 정세영)측이 건설현장 정문 우측 담을 헐고 건설 자재를 들여놓았다. 이를 목격한 스님 및 신도들이 공사 중지를 위해 건설 현장

에 들어가자 현대건설측이 채증을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을 빼앗는 과정에서 미타사 총무 설봉 스님과 정민 스님, 동묘 스님들이 현장 인부들에게 머리과 팔, 다리 등을 구타당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두 사건과 관련 "29일 사건은 스님들에게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공사장 먼지 제거를 위해 한 것"이며 "31일 사건은 스님들끼리 엉켜 넘어져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 설봉 스님은 현재 4주 진료를 받고 미타사 인근 세서로 중앙병원

에 입원한 상태다. 설봉 스님을 비롯한 미타사 스님들은 31일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에 의해 공사방해로 고발을 당한 상태며, 미타사측도 폭행 당사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또한 미타사측은 31일 정세영 회장 집회 현대산업개발 반사건 항의방문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수 스님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승복을 찢으며 스님들을 폭행한 것은 불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타사 문제는 1997년 본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측이 대응 전 앞에 11층 까지만 건립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15층까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환경분쟁이 시작됐다. 미타사는 지난 9월부터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조합측과 시공사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결국 공사방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본지 389호 4면 기사참조)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동국대총장 이사회서 선임”

동국학원이사회, 교수회에 입장전달

동국대 제 15대 총장선출과 관련 교수회가 4명의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학원 법인이사회이사장 녹원가 25일 교수회에 “총장선출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할 방침”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국학원 법인이사회는 이 공문에서 “동국학원 정관 43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되

“지도법사단 구성 첫번째 목표”

대불청중앙회 정상욱 신임 회장

“대불청 10년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27일 대전불교회관에서 열린 대한불교청년회 제45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22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정상욱(44 사진 회장) 정 회장은 전국 15개 지회를 거느린 대불청 활성화 회장 임기 2년의 목표로 꼽았다. “법사가 없어서 지회에서 법회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스님과 교수 붙자름, 대불청 선배들과 함께 지도법사단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대불청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조직을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기법회의 꾸준한 개최가 열쇠라는 것이다. “대불청 회원이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군 제대자 포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회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군인들에 대한 불교 포교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군 제대자에 대한 포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불청 재정확충 사업도 주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100인 1백만원 결사 등 기금 모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꾸준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지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속원사업인 회관 건립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종단의 적극적인 후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원신 기자

‘아프간난민돕기’ 온정 줄이어

의류·현금 답지, 11월말 칸다하르지역 유민등 지원

수십년간의 내전과 외침으로 황폐화된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온정이 줄이어 흥분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겨울철을 맞아 월등준비가 부족한 난민들을 위해 하이탑대표 박석호와 포메이트 무역대표 박찬환에서 각각 15만점의 의류를 한국 JTS이사장 범룡에 기증했다. 또한 정호회대표 유수 전국 7개 지회에서 5톤 탑차 2트럭분의 의류를 모아 1차 겨울나기 지원에 보탬이 됐다. 1차 겨울나기 지원 물품은 1일 부산에서 출발해 23일 파키스탄 카라치에 도착, 11월 말경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근교에 5만점, 칸다하르 지역 자국내 유민 캠프에 15만점 등으로 분배한다. 박찬환 대표는 “우연히 범룡 스님이 출연한 방송을 보고 발심을 했다”며 “마음에는 있어도 잘 표현하지 못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보시하는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수 스님(서울 구룡사 주지)도 아프가니스탄 카불 근교의 파르자 지역 카산드라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10000달러(한화 1250만원) 상당을 한국 JTS에 기증했다. 정수 스님은 “오랜 내전과 미군의 폭격으로 황폐화된 아프가니스탄이 되살아나기 위해선 교육이 우선”이라며 “전생의 아픔을 겪어본 기억이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박지나 JTS이사, 선주법사, 유정길 전 한국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이 실무자로 파견되어 있다.

남동우 기자

사찰 초청강연 러시

조계사, 현각스님 초청법회 도선사, 도율 김용욱 강연회

서울 도선사주지 혜재는 청담대중사 탄신100주년기념 도율 김용욱 초청 대강연회를 연다. ‘21세기와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7일 오후 1시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청담대중사의 사상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과 일화, 21세기 한국불교의 역할 등이 집중 조명된다. 문의 02-993-3161. 조계사주지 지홍은 9일 오후 2시 대웅전에서 동간 결제를 앞두고 ‘만행, 허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스님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문의 02-720-1390 김원우기자



◇10월26일 금정산 천성산 관동반대 시민종교대책위 관계자들이 부산시청앞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노선변경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정·천성산 관동반대 시민종교대책위

노선변경 대선공약채택 촉구

금정산 천성산 관동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10월26일 부산시청앞에서 대선후보들이 노선변경을 공약 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종석 경실련 공동대표, 정여스님, 지율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시민종교대책위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아파트단지 지하를 지하는 등 안전과 환경영향평가 등이 미비한 현 노선이 변경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종교대책위는 같은 시각 26층에서 후원회 행사를 열고 있던

이회창 대통령 후보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전경들의 과잉진압으로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공동집행위원장 도관스님은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이처럼 과잉 진압을 하는것은 시민들과 종교계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지율스님은 계속적인 집회와 행사에도 고수할 공사 강행 움직임이 보이자 3일 양산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자전거와 택시 거리 행진 시위를 벌이는 한편, 부산에 도착한 후, 연산동까지 침묵시위를 벌였다.

천미희 기자

선거와 돈	목탁소리	주택조합의 거짓말
<p>10월31일 낮 1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조계종 제13대 중앙총회의원 직할교구 선거를 위해 선거권자투표인단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선거권자만 860여명에 모두 4명의 총회의원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에는 출마자가 8명이나 됐고 그런 만큼 적지 않은 자금이 풀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한 스님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더니, 그 스님은 “저게 쓴 스님은 2억원 정도, 많게는 6억원 정도를 쓴 스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스님은 “받기는 했는데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스님은 “총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중요하지만, 권속들을 어떻게 챙겨왔는지, 또 자금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3당2락’이라는 해괴한 말도 흘러나왔다. ‘3억을 쓰면 당선되고, 2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것이다. 헛소문이라고 무시해 버리기에겐 웬지 쓸데없다. 왜 이런 ‘돈소문’이 선거가 거듭될수록 자주 나오는 걸까. 물론 출마자들 모두가 선거자금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돈 풍부 따라 투표한 사람도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이 다른 한쪽에서 돈을 쓰면 이쪽에서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자의든 타의든 상당수의 출마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선거날 들은 세 스님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님들 선거에서 돈이 오간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돈애기’가 근본적으로 나올 수 없도록 종단에서 스님들의 의식과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p> <p>한명우 기자</p>	<p>비구니스님들의 수행도량 탐방 승방 서울 보문동 미타사주지 자원이 한 주택재개발 조합측의 거짓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건은 1997년 9월 천년고찰인 미타사 앞 25m 전방에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착공 당시 보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지원, 안양동 영암교회 장로)측은 미타사에 대응 전 전면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15층짜리(103동) 건물을 대웅전 조망리 바깥에 배치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을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기존 계획을 변경, 7층이면 엘리베이터 허가가 나지 않아 11층 건물로 세우면 어떨까하고 주지 스님에게 의견을 물었다. 주지 스님은 노약자들이 7층까지 걸어서 오르내리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는데 조망권이 나 일조권도 일정 부분 포기하면</p> <p>남동우 기자</p>	<p>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승낙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주지 스님에게 일인반구 없이 1998년 6월, 6년의 설계변경 끝에 15층짜리 건물은 미타사 정면으로 배치하여 도시경관 훼손을 막고 통과시켰다. 주지 스님은 그것도 모르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다. 공사관계자에게도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잘 지켜달라야 처를 대접하기도 했다. 결국 사건은 103동이 13층까지 올라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세상물정 모르고 수행한 하던 스님들만 망연자실한 상태. 현재 책임감으로 밤잠을 설치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한 주지 스님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주지직 사퇴서를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했다. 현지 개신교 장로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 측의 거짓말로 스님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종교 간 불신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p> <p>남동우 기자</p>

불교의식(범음·범패), 기탁 학인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의식과정(숙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법(숙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이수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집인원 : 각반 20명(선착순)

■ 원서접수 : 수시모집

■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 입학원서 1통
-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